

주간 테러동향

'21. 5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대통령, 백인 우월주의 극우범죄 치명적 테러로 강조
 - 4.28 「바이든」 대통령 상·하원 합동 연설에서 '애틀란타 총격사건'을 포함한 최근 빈발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들을 “백인우월주의에 의한 극우테러”로 自國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강조하며, '증오범죄 방지법·총기 규제법 등' 법안처리 필요성 언급
- 美 합참의장, 美軍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세 악화 우려
 - 5.2 「밀리」 美 합참의장은 아프간軍·경찰이 조직력을 갖추고 잘 훈련되어 있으며 아프간-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성공해 대규모 내전의 방지 가능성에 희망을 부여하면서도 美軍과 NATO軍 완전 철수로 인해 현지 정부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명

유럽

- EU, 온라인상 테러 콘텐츠 1시간 內 삭제 법안 통과 처리
 - 4.28 EU는 페이스북·트위터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테러 콘텐츠 게시를 접수하였을 때 1시간 內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, 위반시 年매출액의 4%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발표
 - * EU회원국은 1달 後 부터 자국法에 반영해야 하며, 1년 後 전면 적용 예정

○ EU, 라마단 기간 및 하절기에 ISIS의 공격 가능성 경고

- 4.30 EU 안보연구소는 ISIS가 라마단 기간(4.13~5.12)과 하절기에 철도와 고속도로에 대한 테러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, 특히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악용하여 SNS 등으로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전파·주입해 전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

아 · 태평양

○ 부산 벡스코, 제5회 「2021 드론쇼 코리아(4.29~5.1)」 개최

- 4.29~5.1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·과기부·국토부·부산시 주최로 제5회 「2021 드론쇼 코리아」를 개최, ‘드론, 산업을 연결하다’를 주제로 134개社 417개 부스 1만 7,000m² 규모의 전시·체험관과 컨퍼런스를 구성하였으며 총 21,225명(오프라인 15,893명 / 온라인 5,332명) 참가

* 안티드론 컨퍼런스는 △주요 법적쟁점·대응방안 △지상기반 불법드론 탐지·식별·추적·무력화 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△지능형 무력화 및 드론 포렌식 기술 등 주제로 진행

○ 검찰, 駐韓 佛대사관 협박전단 부착자 징역 2년 구형

- 4.30 검찰은 駐韓 佛대사관 외벽에 ‘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’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해 ‘외국사절 협박’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 2명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

중 동

○ 알카에다, 탈레반과 협력 對美 전쟁 지속 시사

- 4.29 알카에다 대변인은 CNN의 인터뷰 요청에 “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전우들의 보호 덕분에 지하드 전선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, 美國이 이슬람권에서 추방되지 않는 한 전쟁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답변

* CNN 국가안보전문가는 알카에다의 답변이 실행 가능성이 크고,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탈레반과 지속적인 형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를 통한 세력 회복 가능성을 경고

인도 마오이스트 叛軍, '총선 혼란' 겨냥 폭탄 테러 자행

- '19.5.1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 가드치롤리 지역의 잠붐파다 마을에서 극좌 마오이스트 叛軍이 '총선 혼란'을 겨냥, 경찰특공대원 탑승 차량을 목표로 폭탄테러를 자행하여 총 16명 사망(경찰 15명, 운전사 1명)
 - 마오이스트들은 이날 새벽 이 지역에 주차된 차량 30여대를 방화한후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자 습격
- 언론은 마오이스트들이 특히 선거철이 되면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테러에 집중했으며, '19.4월 이후 가드치롤리와 차티스가르에서 각각 4차례와 2차례의 테러가 발생했다고 보도
 - * '19년 인도 총선 유세는 4.11~5.19간 전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, 5.23 개표 실시
- 사건 직후, 「모디」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“치안 병력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”고 발표하였으며, 사법당국은 수도 뉴델리 총선 투표일(5.12)에 경찰 6만 명을 배치해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

< 인도 마오이스트 공산당(CPI-M) >

- (목 표) 인도 계급주의 타파 및 공산주의 국가 건설('04.9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인도('09.6)
- (조직규모) 약 10,000~20,000명 추정
- (연계세력) 네팔 공산당 등 域內 공산단체
- (활동지역)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·중부 차티스가르·북동부 자르칸드주 및 네팔 국경 지역
- (활동수법) 軍·警 및 국가중요시설 테러, 산간 오지마을 습격, 도로·열차 등 사회 기반시설 건설작업 현장 기습 등 게릴라전 전개
- (주요테러) ① '10.4 차티스가르주 단테와다郡에서 경찰기동대 매복공격(사망 75)
 ② '10.5 웨스트벵갈주에서 고속열차 대상 폭탄테러(사망 80, 부상 200)
 ③ '13.5 차티스가르주 수크마 밀림지역에서 국회 및 州의회 의원 탑승 차량행렬 매복공격(사망 28, 부상 32)